

요한복음 (John) 1-7
서로에게 성경공부

The goal is to encourage discussions. Everyone must talk before starting

Chapter 1 – 예수님은 누구인가 + 요한의 역할 + 예수님의 첫 제자들

당신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Who do you say Jesus is?

예수님은 Jesus is ...

- 1. 말씀 the Word (1, 14)
- 2. 하나님 God (1, 18)
- 3.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분 One who was with God before creation of the world (2)
- 4. 창조자 Creator (3)
- 5. 생명 Life (4)
- 6. 빛 Light (4, 5, 9)
- 7. 어둠 속으로 오신 분 One who came into the darkness (5, 9)
- 8. 우리가운데 오신 사람 One who came amongst us (10, 14)
- 9. 하나님의 독생자 God's one and only son (14)
- 10. 은혜와 진리 grace and truth (14)

1 In the beginning the Word already existe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2 He existed in the beginning with God. 3 God created everything through him, and nothing was created except through him. 4 The Word gave life to everything that was created, and his life brought light to everyone. 5 The light shines in the darkness, and the darkness can never extinguish it.

9 The one who is the true light, who gives light to everyone, was coming into the world. 10 He came into the very world he created, but the world didn't recognize him. 11 He came to his own people, and even they rejected him. 12 But to all who believed him and accepted him,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14 So the Word became human and made his home among us. He was full of unfailing love and faithfulness. And we have seen his glory, the glory of the Father's one and only Son... 16 From his abundance we have all received one gracious blessing after another. 17 For the law was given through Moses, but God's unfailing love and faithfulness came through Jesus Christ. 18 No one has ever seen God. But the unique One, who is himself God, is near to the Father's heart. He has revealed God to us.

1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2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3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을 받은 것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4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5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을 할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9 참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춥니다. 10 참빛이 되신 말씀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는데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11 그분은 자기의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들로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12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14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에서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16 그분의 총만하시사에서 우리 모두는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17 그것은 율법이 모세를 통해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18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며, 아버지 곁에 계시던 독생자이신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 주셨습니다.

19 This was John's testimony when the Jewish leaders sent priests and Temple assistants from Jerusalem to ask John, "Who are you?" 20 He came right out and said, "I am not the Messiah." 21 "Well then, who are you?" they asked. "Are you Elijah?" "No," he replied. "Are you the Prophet we are expecting?" "No." 22 "Then who are you? We need an answer for those who sent us. What do you have to say about yourself?" 23 John replied in the words of the prophet Isaiah, "I am a voice shouting in the wilderness. 'Clear the way for the Lord's coming!'" 24 Then the Pharisees who had been sent 25 asked him, "If you aren't the Messiah or Elijah or the Prophet, what right do you have to baptize?" 26 John told them, "I baptize with water, but right here in the crowd is someone you do not recognize. 27 Though his ministry follows mine, I'm not even worthy to be his slave and untie the straps of his sandal."

19 요한이 증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 몇 사람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십니까?"라고 물게 했습니다. 20 요한은 그 질문에 거절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21 그러나 그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엘리야입니까?"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오,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22 그러나 그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창조 오시기로 한 그 예언자입니까?" 요한은 또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23 그러나 그들이 요한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3 요한은 그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했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주님을 위하여 길을 곧게 만들어라' 하고 외치는 사람의 소리입니다." 24 보냄을 받은 유대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인이 보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25 그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라면 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줍니까?" 26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할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계십니다. 27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35 The following day John was again standing with two of his disciples. 36 As Jesus walked by, John looked at him and declared, "Look! There is the Lamb of God!" 37 When John's two disciples heard this, they followed Jesus. 35 다음 날, 요한은 제자 두 사람과 함께 다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36 그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양이시다." 37 제자 두 사람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40 Andrew (First disciple), Simon Peter's brother, was one of these men who heard what John said and then followed Jesus. 41 Andrew went to find his brother, Simon, and told him, "We have found the Messiah" (which means "Christ"). 42 Then Andrew brought Simon to meet Jesus. Looking intently at Simon, Jesus said, "Your name is Simon, son of John—but you will be called Cephas" (which means "Peter").

40 요한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른 두 제자 중 한 사람은 지문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41 안드레가 첫 번째 한 일은 그의 형 지문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는 지문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어"라고 말했습니다. (메시아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42 그리고 다시 안드레는 지문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문을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너를 제바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바란 '베드로'란 뜻입니다.)

45 Philip went to look for Nathanael and told him, "We have found the very person Moses and the prophets wrote about! His name is Jesus, the son of Joseph from Nazareth."

Comment [SWS1]: John was apparently receiving attention from his activities – does this picture a life of influence?

Comment [SWS2]: John had purpose – he knew exactly what he was called to be – His kingdom work

Comment [SWS3]: Enabling others to do ministry (God's will for them). Can we do that for others like John did?

Comment [SWS4]: John was not self-absorbed as if he had to hold on to "his" disciples. He only focused on God's will for him in his life, and was willing (actually encouraging) his disciples to go follow someone else

Comment [SWS5]: God's will for you is not greater or lesser because you knew Him longer. Note even the name change. Jesus knew God's plan for Peter would be great.

Comment [SWS6]: Back in those days, there were few people yearning for a savior
1. Do we have that kind of yearning? What do you look for in a savior? Someone who can guide you in life? Give you the desires of your heart? Remove any oppression from your life?
2. Collectively, is there a general sense of need for a savior today, particularly young adults?



45 빌립은 나다나엘을 만나고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책에 썼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찾았다.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그분입니다.”

Chapter 2 -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다 + 하나님의 성전의 열성 + 유대인들의 질문 + 기적을 통해 사람들이 믿는다

4 “Dear woman, that’s not our problem,” Jesus replied. “My time has not yet come.” 5 But his mother told the servants, “Do whatever he tells you.” 4 예수님께서 “어머니, 왜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까? 저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5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그분이 사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이라” 하고 말해 두었습니다.

Comment [SWS7]: Jesus’ mother believed. Jesus performs miracles based on our faith. To see miracles, we need to pray in faith.

13 It was nearly time for the Jewish Passover celebration, so Jesus went to Jerusalem. 14 In the Temple area he saw merchants selling cattle, sheep, and doves for sacrifices; he also saw dealers at tables exchanging foreign money. 15 Jesus made a whip from some ropes and chased them all out of the Temple. He drove out the sheep and cattle, scattered the money changers’ coins over the floor, and turned over their tables. 16 Then, going over to the people who sold doves, he told them, “Get these things out of here. Stop turning my Father’s house into a marketplace!” 13 유대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 오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14 예루살렘에서는 정전 뜰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있는 사람들과 또 상에 앉아서 돈을 바꿔 주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15 예수님께서서는 포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비롯하여 모든 짐승을 상전 뜰에서 쫓아 내셨습니다. 16 예수님께서서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그 사람들의 돈을 흩트리셨습니다. 16 그리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여기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시장터로 만들지 마라!”

Comment [SWS8]: Jewish people felt this was a good thing for the Lord. Is God really your number one priority? We sometimes need to revisit all that we are doing to make sure that our actions and services are truly for Him. In particular, think about our church and our ministry... are we doing something just out of activity?

18 But the Jewish leaders demanded, “What are you doing? If God gave you authority to do this, show us a miraculous sign to prove it.” ... 23 Because of the miraculous signs Jesus did in Jerusalem at the Passover celebration, many began to trust in him. 24 But Jesus didn’t trust them, because he knew human nature. 25 No one needed to tell him what mankind is really like. 18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당신은 당시에 이런 일을 행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무슨 표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23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유월절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24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25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대해서 어느 누구의 증언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Comment [SWS9]: We can pray asking God for miracles so that people will come to believe

당신이 원하시는데로 기적을 보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기적을 보이겠습니까? If you could have your way to prove God to someone, what miracle would you use to demonstrate that God exists?

Chapter 3 - 니고데모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다 + 세례 요한의 증거

3 There was a man named Nicodemus, a Jewish religious leader who was a Pharisee. 2 After dark one evening, he came to speak with Jesus. “Rabbi,” he said, “we all know that God has sent you to teach us. Your miraculous signs are evidence that God is with you.” 3 니고데모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 공회회 의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2 어느 날 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선생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3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Comment [SWS10]: Knowing the risk, Nicodemus is unsure, but he is seeking the truth. Before coming to know God, have you ever questioned life or about who God is? What can we do to enable people to ask about God when they are ready to ask?

9 “How can this be?” Nicodemus asked. 니고데모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Comment [SWS11]: Nicodemus was inquisitive and teachable. Are you this way, particularly when the Holy Spirit talks to you?

14 And as Moses lifted up the bronze snake on a pole in the wilderness, so the Son of Man must be lifted up, 15 so that everyone who believes in him will have eternal life. 16 For God loved the world so much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so that everyone who believes in him wi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17 God sent his Son into the world not to judge the world, but to save the world through him. 18 There is no judgment against anyone who believes in him. But anyone who does not believe in him has already been judged for not believing in God’s one and only Son. 19 And the judgment is based on this fact: God’s light came into the world, but people loved the darkness more than the light, for their actions were evil. 20 All who do evil hate the light and refuse to go near it for fear their sins will be exposed. 21 But those who do what is right come to the light so others can see that they are doing what God wants.” 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한다. 15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16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17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18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19 판결 내용은 이렇다. 빛이 세상에 와 있지만 사람들은 빛보다는 어둠을 더 좋아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어둠을 더 좋아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다. 20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빛을 미워하며, 또한 빛으로 밝히임이 자기의 행위가 폭로되는 것이 두려워 빛을 향해 나오지 않는다. 21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빛을 향해 나온다.

Those that are unwilling to hear the gospel, what is their mindset? Those that have been in the church institution for a long time, what do you think is their mindset?

Comment [SWS12]: Recall that God brought out His people (Israel) through Moses; Now, God brings His people (church) through faith in Jesus

26 So John’s disciples came to him and said, “Rabbi, the man you met on the other side of the Jordan River, the one you identified as the Messiah, is also baptizing people. And everybody is going to him instead of coming to us.” 27 John replied, “No one can receive anything unless God gives it from heaven. 28 You yourselves know how plainly I told you, ‘I am not the Messiah; I am only here to prepare the way for him.’ 29 It is the bridegroom who marries the bride, and the best man is simply glad to stand with him and hear his vows. Therefore, I am filled with joy at his success. 30 He must become greater and greater, and I must become less and less. 31 ‘He has come from above and is greater than anyone else. We are of the earth, and we speak of earthly things, but he has come from heaven and is greater than anyone else.’ 26 그래서 그들은 요한에게 와서 “선생님, 요단 강 동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즉 선생님께서 이전에 증언하셨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계시며, 모든 사람들이 그분에게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7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28 너희들은, 내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한 것을 들은 증인들이다. 29 신부의 주인은 신랑이다. 신랑을 기다리며, 그가 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신랑의 친구는 신랑의 소리를 듣고 대단히 기뻐한다. 나의 기쁨도 이와 똑같은 것이다. 나의 기쁨이 이제 이루어졌다. 30 그분은 점점 더 위대해질 것이고, 나는 점점 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31 하느님께서 “위로부터 오신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요, 땅으로부터 온 사람은 땅에 속하여, 땅의 일을 말한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신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요.”

Comment [SWS13]: John was empowering others to do God’s will in their lives. Are you able to do that for others?

Consider the kinds of people Jesus approaches – what kind of people are we to approach?

Chapter 4 - Samaritan woman at the well + Jesus heals government official’s son

9 The woman was surprised, for Jews refuse to have anything to do with Samaritans. She said to Jesus, “You are a Jew, and I am a Samaritan woman. Why are you asking me for a drink?” 10 Jesus replied, “If you only knew the gift God has for you and who you are speaking to, you would ask me, and I would give you living water.” 11 “But sir, you don’t have a rope or a bucket,” she said, “and this well is very deep. Where would you get this living water?” 12 And besides, do you think you’re greater than our ancestor Jacob, who gave us this well? How can you offer better water than he and his sons and his animals enjoyed?” 13 Jesus replied, “Anyone who drinks this water will soon become thirsty again. 14 But those who drink the water I give will never be thirsty again. It becomes a fresh, bubbling spring within them, giving them eternal life.” 15 “Please, sir,” the woman said, “give me this water! Then I’ll never be thirsty again, and I won’t have to come here to get water.” 9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 남자와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마실 것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10 예수님께서서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무엇인지 또 내가 마실 것을 달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오히려 당신이 그 사람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입니다.” 11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에게는 물 길도 도구도 없고 이 우물은 매우 깊으며, 어디서 그 생명의 물을 구할단 말입니까? 12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분이란 말씀이신지?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도 친히 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셨고, 그분의 아들들과 가족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13 예수님께서서는 “이

Comment [SWS14]: Another person who is hungry for something (salvation, some hurt or lack in one’s life)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요. 14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가 되었건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우물이 될 것이요"라고 대답하셨습니다. 15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선생님, 저에게 그런 물을 주셔서 제가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을 뿐더러 물을 길으러 여기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16 "Go and get your husband," Jesus told her. 17 "I don't have a husband," the woman replied. Jesus said, "You're right! You don't have a husband— 18 for you have had five husbands, and you aren't even married to the man you're living with now. You certainly spoke the truth!" 19 "Sir," the woman said, "you must be a prophet... 39 Many Samaritans from the village believed in Jesus because the woman had said, "He told me everything I ever did!" 40 When they came out to see him, they begged him to stay in their village. So he stayed for two days, 41 long enough for many more to hear his message and believe. 42 Then they said to the woman, "Now we believe, not just because of what you told us, but because we have heard him ourselves. Now we know that he is indeed the Savior of the world."

Comment [SWS15]: Jesus talks directly to her hurt

Comment [SWS16]: Testimonies come as God touches people's greatest hurts. So then, what should our role be?

16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가서 당신 남편을 불러 이리로 데려 오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 그 여자는 예수님께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이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은 맞는 말입니다. 18 실제로 당신은 남편이 다섯 명이나 있었고, 지금 당신과 함께 사는 남자가 당신 남편이 아닙니다. 당신이 방금 전에 말한 것이 틀린 말이 아니었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 그 여자는 "선생님, 제가 보기에 선생님께서 예언자입니다..." 40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들과 함께 치내다 가시기를 청했으므로 거기서 이들을 머무르셨습니다. 41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42 그들은 그 여자에게 "더 이상 우리는 당신의 말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요"라고 말했습니다.

20 So tell me, why is it that you Jews insist that Jerusalem is the only place of worship, while we Samaritans claim it is here at Mount Gerizim, where our ancestors worshiped? 21 Jesus replied, "Believe me, dear woman, the time is coming when it will no longer matter whether you worship the Father on this mountain or in Jerusalem. 22 You Samaritans know very little about the one you worship, while we Jews know all about him, for salvation comes through the Jews. 23 But the time is coming—indeed it's here now—when true worshipers will worship the Father in spirit and in truth. The Father is looking for those who will worship him that way. 24 For God is Spirit, so those who worship him must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Comment [SWS17]: Salvation was to be through Israelites...

Comment [SWS18]: The picture of the new covenant—no longer bound to the physical temple, but in spirit, we can connect to God (because of what Jesus has done)

20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으나, 유대인들은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다고 주장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1 예수님께서 이렇듯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나를 믿시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당신들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요. 22 사마리아 사람이 당신들을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나,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하오. 그것은 구원이 유대인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요. 23 그러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 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오. 24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하오."

31 Meanwhile, the disciples were urging Jesus, "Rabbi, eat something." 32 But Jesus replied, "I have a kind of food you know nothing about." 33 "Did someone bring him food while we were gone?" the disciples asked each other. 34 Then Jesus explained: "My nourishment comes from doing the will of God, who sent me, and from finishing his work. 31 그 사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선생님, 음식을 좀 드시지요"라고 청했습니다. 32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33 그러자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렸을까?"라고 말했습니다. 34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Comment [SWS19]: How does this relate to us? What is our food? What is more important to us than the food we eat?

50 Then Jesus told him, "Go back home. Your son will live!" And the man believed what Jesus said and started home... 53 Then the father realized that that was the very time Jesus had told him, "Your son will live." And he and his entire household believed in Jesus.

50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시오. 당신 아들은 살 것이요"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갔습니다. 53 아이 아버지는 그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 아들은 살 것이요"라고 말씀하신 그 시각과 정확히 일치한 것을 알고 자기와 그 집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Chapter 5 -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치료하심 +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만남

3 Crowds of sick people—blind, lame, or paralyzed—lay on the porches. 5 One of the men lying there had been sick for thirty-eight years. 6 When Jesus saw him and knew he had been ill for a long time, he asked him, "Would you like to get well?" 7 "I can't, sir," the sick man said, "for I have no one to put me into the pool when the water bubbles up. Someone else always gets there ahead of me." 8 Jesus told him, "Stand up, pick up your mat, and walk!" 9 Instantly, the man was healed! He rolled up his sleeping mat and began walking!

Comment [SWS20]: What does God do for this sick person? Then, what kinds of miracles shall we pray for when we pray for one another?

3 이 곳에는 병약한 사람, 앞 못 보는 사람, 걸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겨는 사람 등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5 거기에 삼십팔 년 동안 병을 앓아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6 예수님께서 그 남자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아주 오랫동안 병을 앓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나기를 원하시오?" 7 병든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제가 연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물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저보다 앞서서 물 속으로 들어가곤 합니다." 8 그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당신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시오." 9 즉시, 그 남자는 병이 나았습니다. 그는 그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30 I can do nothing on my own. I judge as God tells me. Therefore, my judgment is just, because I carry out the will of the one who sent me, not my own will... 36 But I have a greater witness than John—my teachings and my miracles. The Father gave me these works to accomplish, and they prove that he sent me! 37 And the Father who sent me has testified about me himself. You have never heard his voice or seen him face to face, 38 and you do not have his message in your hearts, because you do not believe me—the one he sent to you.

Comment [SWS21]: Jesus had a mission to fulfill. And His works proved that He was sent.

For us, what kinds of results should our lives produce? As we do the will of God, the fruits of our labor should demonstrate that we are carrying out God's will.

If you are unsure whether you are doing the will of God, spend some time in prayer and ask God for His thoughts.

30 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내가 듣는 대로만 심판을 한다. 그래서 나의 심판은 옳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 하지 않고, 오직 나를 보내신 분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애쓴다"... 36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셨고,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명한다. 37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언해 주셨다. 너희는 지금까지 그분의 음성을 듣지도 않았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도 않았다. 38 또한 너희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람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는다.

Chapter 6 - 5,000 명을 먹이심 + 예수님이 물 위로 걸음 + 예수님은 생명의 떡/빵/음식입니다.

5 Jesus soon saw a huge crowd of people coming to look for him. Turning to Philip, he asked, "Where can we buy bread to feed all these people?" 6 He was testing Philip, for he already knew what he was going to do. 7 Philip replied, "Even if we worked for months, we wouldn't have enough money to feed them!"

5 예수님께서서는 눈을 들어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바라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6 예수님께서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런 질문을 하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빌립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7 빌립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빵을 한 입씩만 먹는다고 해도, 그 빵을 사려면 이백 데나리온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14 When the people saw him do this miraculous sign, they exclaimed, "Surely, he is the Prophet we have been expecting!" 15 When Jesus saw that they were ready to force him to be their king, he slipped away into the hills by himself.

14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세상에 오실 그 예언자가 틀림없다." 15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강제로 데려다가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곳을 떠나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Comment [SWS22]: Is your dream to become a king? (or any other high position?). How do you relate to this? What would you do when faced with a similar position?

Comment [SWS23]: Are you after Jesus for what He can do for you?

Comment [SWS24]: God wants us to trust and believe in Him. For us to walk with Him and commune with Him. Let us not forget this—love the giver, not the gifts.

26 Jesus replied, "I tell you the truth, you want to be with me because I fed you, not because you understood the miraculous signs. 27 But don't be so concerned about perishable things like food. Spend your energy seeking the eternal life that the Son of Man can give you. For God the Father has given me the seal of his approval." 28 They replied, "We want to perform God's works, too. What should we do?" 29 Jesus told them, "This is the only work God wants from you: Believe in the one he has sent." 26 예수님께서서 그 사람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행한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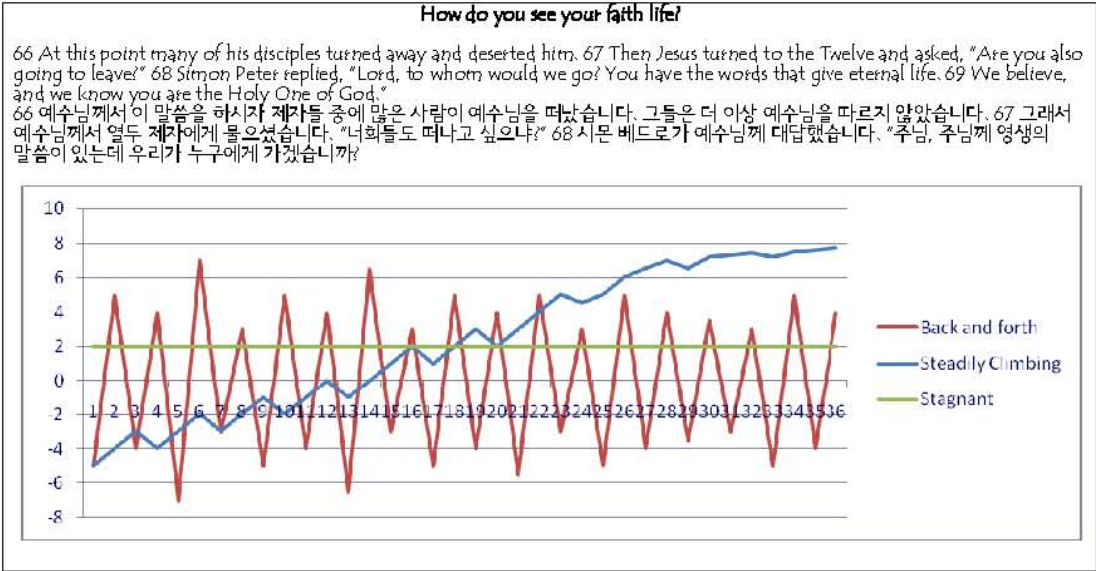
아니라 빵을 배부리 먹었기 때문이다. 27 썩어 없어지는 음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히 있어서 영생을 주는 음식을 위해 일하여라. 인자는 너희에게 그런 음식을 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자가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28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29 예수님께서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믿는 것이다.”

30 They answered, “show us a miraculous sign if you want us to believe in you. What can you do?
30 다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표적을 행하여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35 Jesus replied, “I am the bread of life. [Whoever comes to me will never be hungry again. Whoever believes in me will never be thirsty... 40 For it is my Father’s will that all who see his Son and believe in him should have eternal life...
35 그 때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전언하셨습니다. “나도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다들 믿든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40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영생을 얻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다...”

Comment [SWS25]: This is the gospel – those who trust in Jesus will have all that s/he needs – just having Him should be all that we need.

So, consider your prayers. Are you after them because you want to succeed, look good, and be happy? Or do you go after your prayers because you want to do the will of God through what God opens up for us?



Chapter 7 –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리키다 +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만남

16 So Jesus told them, “My message is not my own; it comes from God who sent me. 17 Anyone who wants to do the will of God will know whether my teaching is from God or is merely my own. 18 Those who speak for themselves want glory only for themselves, but a person who seeks to honor the one who sent him speaks truth, not lies.
16 그래서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에게서 온 것이다. 17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또는 내가 내 자신의 교훈을 말하는 것인지 알 것이다. 18 자기 자신의 교훈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 말하지만, 그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Comment [SWS26]: What kind of message do you teach? Does your actions line up with what you teach?

37 On the last day, the climax of the festival, Jesus stood and shouted to the crowds, “Anyone who is thirsty may come to me! 38 Anyone who believes in me may come and drink! For the Scriptures declare, ‘Rivers of living water will flow from his heart.’ 39 (When he said “living water,” he was speaking of the Spirit, who would be given to everyone believing in him. But the Spirit had not yet been given, because Jesus had not yet entered into his glory.)
37 [생명수에 관한 교훈] 축제가 절정에 달한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서 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 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이 말한 대로,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39 이것은 예수님께서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장차 받을 성령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직은 성령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Comment [SWS27]: We should provide an environment where those that are thirsty can come and meet Jesus. Are we doing ok? Or do we need to change how we do things?

50 Then Nicodemus, the leader who had met with Jesus earlier, spoke up. 51 “Is it legal to convict a man before he is given a hearing?” he asked.
50 그들 중이 한 사람으로서, 전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Comment [SWS28]: Hidden believer. (or possibly someone who is not so sure about Jesus)

John 19:39 He was accompanied by Nicodemus, the man who earlier had visited Jesus at night. Nicodemus brought a mixture of myrrh and aloes, about seventy-five pounds.
요한복음 19:39 니고데모도 요셉과 함께 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일찍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몰약과 알로에를 섞어 만든 향료 를 약 33킬로그램 정도 가져왔습니다.

Comment [SWS29]: Nicodemus comes to bury Jesus with Joseph. In the end, he believes.

Do you think Nicodemus did the right thing by staying quiet? Why or why not?

Do you wonder if he could've done so much more by standing to his beliefs?

Can you recall a person who was a Pharisee but stood to believe in Jesus? How did he do?